



일차의료의 현황 및 과제

안소영 연구원

인구 보건 및 총 의료지출 면에서 일차의료의 강화는 국민건강 개선에 기여하며 형평성 및 효율성 측면에서도 이점을 지니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유럽의 여러 국가에서는 여전히 일차의료서비스의 체계가 미흡한 상황이며, 이로 인해 만성질환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OECD는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적절한 자원과 조직 활용을 제시함

- 인구 보건 및 총 의료지출 면에서 일차의료¹⁾의 강화는 국민건강 개선에 기여하며 형평성 및 효율성 측면에서도 이점을 지니고 있음
 - OECD 18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국가의 일차의료 시스템의 강화는 사망률과 음(-)의 관계를 보이며,²⁾ 이차의료에 비해 일차의료의 비용이 저렴함³⁾
 - WHO(2018)에 의하면 일차의료인(Primary Care Physicians)은 전문의(Specialists)보다 연속적, 포괄적인 진료를 제공하므로 국민건강을 개선할 가능성이 더 높음(〈표 1〉 참조)⁴⁾
 - 이로 인해 입원 일수, 응급실 사용 및 의료비 감소 등의 이점도 존재함

1) 일차의료는 지역사회에 속한 주민들의 건강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질병예방 및 조기진단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는 의료서비스의 첫 번째 접촉점을 제공함
 2) Macinko J, Starfield B, Shi L.(2003), "The contribution of primary care systems to health outcomes within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countries 1970-1998", *Health services research*, 38(3): pp. 831~865
 3) Franks P, Clancy CM, Nutting PA.(1992), "Gate-keeping revisited: Protecting patients from over treatment",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327: pp. 424~429
 4) WHO(2018), "Building the economic case for primary health care: a scoping review"

〈표 1〉 일차의료의 장점

| 구분 | 내용 |
|---------|---|
| 접근의 형평성 | 일차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 형평성은 지역적, 비용적인 측면에서 이차 의료서비스에 비해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음 |
| 총 입원 일수 | 치료의 연속성이 총 입원 일수를 줄일 수 있음 일차의료에서 사례관리 프로그램 ⁵⁾ 은 전체입원의 감소와 관련이 있음 |
| 응급실 사용 | 일차의료에 대한 접근성(1인당 일차의료의사 수, 일차의료까지의 거리)이 낮을 경우 응급실의 사용이 증가함 치료의 연속성이 응급실의 사용 감소와 관련이 있음 |
| 의료비 | 일차의료 의사 공급, 의료제공자의 전문성, 관리의 연속성 및 일차 진료에 대한 접근성 개선 등이 총 의료비용을 줄일 수 있음 |

자료: WHO(2018), "Building the economic case for primary health care: a scoping review", pp. 12~13 정리

■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여러 국가에서는 여전히 일차의료이 취약하여 만성질환이 높은 수준임⁶⁾

- 2014년에는 일부 만성질환으로 고통 받는 환자의 26%가 권장된 예방검사(Recommended Preventive Tests)를 받지 못하였으며, 예방과 질병관리를 통해 피할 수 있는 만성질환에 대한 병원 입원율은 (Avoidable Admissions) 여전히 높은 수치임
 - 2016년 기준 5개 만성질환은 전체 병원입원의 6.1%를 차지하였으며 해당비용은 OECD 국가 평균 8억 3500만 달러 이상일 것으로 예상됨
- 또한 항생제의 부적절한 사용과 높은 소비는 내성변종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많은 비용과 인명피해를 초래함

■ 이에 OECD(2019)⁷⁾는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적절한 자원과 조직의 활용을 권고함

-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 투자 및 자원이 요구됨
 - 현재 OECD 국가에서 전체 의료소비의 14%만이 일차의료에 사용되고 있으며, 전체 의사 중 일차의료 인의 비중은 2000년 32%에서 2016년 29%로 감소함
- 기존 일차의료 모델을 능동적, 예방적, 참여적인 접근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음
 - 2018년 OECD 국가 중 15개 국가만이 팀 혹은 네트워크 기반의 일차의료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음

kiri

5) 사례관리는 고객의 건강 및 인적서비스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옵션과 서비스를 계획, 구현, 조정하고 평가하는 여러 기관, 단체 간의 협업 프로세스를 뜻함
 6) OECD(2019), "Realising the Full Potential of Primary Health Care"
 7) OECD(2019), 상동